

북한사회 대중운동에서의 권력작용 연구

: 소위 '영도방법'의 원리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를 중심으로

이만우

1. 들어가는 말-문제 설정

소위 '혁명적 군중 노선'의 기치 아래,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은 '건국사상 총동원운동'(1946~1948)을 시작으로 하여, 1950년대 말~1960년대의 '천리마 운동', 그리고 1970년대의 '3대혁명 소조운동' 및 1980년대의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운동'과 1992년 수정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당면한 정치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대중운동은 부분적인 '정치사상 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전체의 구조 변동을 초래하는 일종의 지속적인 '문화혁명'의 성격을 지닌다. 즉 주체의 '영도방법'¹⁾이라고 불리는 대중 참여 또는 대중 동원의 원리이자 체계는 정치사상 교양을 핵심으로 하여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사회화'의 실제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

1) 영도는 그 내용보다는 형식, 즉 기술(技術)의 문제이다. 북한에서 영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체사상과 혁명이론에 위임되고 있으며, 영도방법에서는 사상적 수준에서 지도의 문제를 다룬 지도 원칙을 실행하는 기술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즉, 영도방법은 주체사상과 혁명이론을 대중운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지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도방법은 지도 원칙으로서의 '영도원리', 영도의 시행 구조 및 범위를 나타내는 '영도체계', 직접적으로 대중과 대면할 때 이용되는 '영도예술'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총서 : 영도체계』 제9권(서울 : 지평, 1989).

다.)

우리는 정치사회화의 요점을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행사하는 권력작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정치체제가 유지되는 현상을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권력관계로 파악하고, 정치사회화가 피지배자에 대한 '지배(domination)'를 가능케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영도방법에 입각한 대중운동은 북한의 정치사회화와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에서 정치사회화는 대중에 대한 지배의 실현이며, 대중운동은 그 지배의 실현을 공고히 하는 수단인 셈이다.

정치사회화에 대한 기존 이론들, 특히 헤게모니(hegemony) 이론의 권력에 대한 이해의 두 가지 편향은, 우선 행위 주체의 상황이 가지는 객관적인 특징으로서 권력을 취급하고, 다음으로 그 권력의 특수한 유형들을 보편화하는 것이다.³⁾ 그러나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권력개념을 사용할 때 중요한 요점은 권력이 대중운동에서 취하는 다양한 유형들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행위자들(개인 또는 집단)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동기화하는, 즉 대상관계의 산물로서 권력을 간주할 때 가능한 것이다.⁴⁾

여기서 '대상관계(object relations)'⁵⁾란 용어는 본 연구의 특수한 초점을 지

2) 정치사회화는 미시적 관점(개인이 정치에 대한 신념체계를 형성하는 과정)과 거시적 관점(정치체제가 유지되고 발전해 가기 위해서 개인의 지지를 획득해 가는 과정)의 결합 속에서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다음을 참조. 김경웅, 『북한정치사회화론』(서울: 박영사, 1995).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 차원 또는 체계적 차원에서 정치사회화가 실현되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사회화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개념적 인식의 문제이다.

3) Benedetto Fontana, *Hegemony and Power*(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pp.140~162.

4)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그러한 권력에 대한 이해를 '대상관계적 권력이론'이라고 부를 것이다.

5) 원래 대상관계는 심리내적 환경에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누군가의 감정적 태도나 행위 및 그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기(self)와 타자(other)의 관계망 또는 상호작용의 장을 말한다. 이 개념에 의한 연구영역은 정신분석의 메타심리학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사회학), 그리고 인간 행위에 대한 행동주의적 입장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시하는데, 대중운동 과정에서 권력이 사회적 행위자가 서로 맺는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유래된 것이다. 따라서 대상관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필자는 대중운동에서 다양한 형태로 도처에 편재하는 무의식적 권력작용을 거론할 수 있다. 대중운동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대인적인 모든 형태는 대상관계라는 개념에 의해 포괄되기 때문에, 대상관계적 권력이론은 권력이 대중운동에서 취하는 다양한 유형들을 개념화한다.

헤게모니 이론은 권력이 일상 생활을 구성하고 대중운동을 추동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행사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 이론은 권력현상을 정치영역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에서 정치 지도자(당 또는 간부)에 의해 행해진 결정이 확실히 권력행사의 전형으로 인정되면서 해당 기관의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이론의 일면성은 대상관계적 권력에 초점을 둬으로써 교정될 수 있다.

대상관계적 권력이론의 근본문제는 “권력이 어떻게 그 자체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가”이다. 그런데 이 질문이 채택되자마자,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결국 권력에 대한 모든 질문들은 경험적인 것처럼 보인다. “누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권력을 행사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의 의의가 인정된다면, 대상관계적 권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필요성은 자명하고, 본 논문의 과제가 대중운동 속에서 권력의 실제 구조를 희석화시키는 ‘명확한(?)’ 경험적 연구와는 상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상관계적 권력이론을 발전시키려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권력개념이 대중운동에서의 사회적 불평등과 문화적 차별을 기술하고 사회적 관행을

정신분석에서 대상관계 개념은 물론 개인적인 기초를 가지는 것이나 그 개인적인 기초를 넘어 사회적인 수준으로 확대되고, 사회학이나 주류 심리학에서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온 강렬한 감정적 태도와 파괴적 정동의 실행을 포착하는 장점을 가진다. Allan Compton, “Object and Object Relations” in Burness E. Moore and Bernard D. Fine, eds., *Psychoanalysis : The Major Concepts*(New Haven &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1995), p.438.

평가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이 북한의 사회 제도와 문화 형태들을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대상관계적 권력 개념은 그것들을 비판하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대중운동에서의 사회관계가 권력관계임을 은폐함으로써 북한의 지배자들은 그 권력관계가 그 자체로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정당화시켜 왔다.⁶⁾ 권력은 그 기본적인 사회적 행사를 살펴보면, 항상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대중운동 속의 위계적 관계의 현존을 지시한다.

북한사회 연구자들이 정치사회화에 대한 '비판 이론'의 기초를 충분히 반성하지 못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운동 연구는 이론적 주장을 위한 적절한 '기초'를 더욱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운동 연구는 단순히 지배와 종속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배자가 상징을 조작하거나 매체를 이용하는 억압적 '제도화 기능'을 넘어서, 지배의 심리적 수용 기제를 탐구하는 정신분석적 입장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에 대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정치사회화의 헤게모니 이론에 내재하는 권력에 대한 '지배의 문제들'을 비판·보완하고, 이를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하여 '변형(transformation)의 문제들'로 새롭게 전회시키고자 하며, 다음으로 대상관계적 권력개념을 통해서, 영도방법의 원리가 초래하는 사회적 관행('어머니노릇하기')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사회 대중운동의 성격을 밝혀내는 것이다.

2. 대상관계적 권력의 정신 역동 : '지배'와 '변형'

대상관계적 권력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운동 속에 내재한

6) 이러한 지배의 합리화는 북한사회의 대중운동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특히 '천리마운동'의 구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에서 잘 드러난다. 전후 북한사회의 복구라는 정책방향의 맥락에서, 노동력 동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심리적 보상수단으로서 천리마운동이 제시되어 피지배자인 대중들에게 수용된 것이다.

권력작용으로부터 그 내용이 추상화되어야 한다. 개인 또는 집단의 차원에서, 권력작용은 자기가 타자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대상관계의 동태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 행위자에 대해 다른 행위자의 체계적인 권력작용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권력작용의 특수한 두 가지 형태를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지배'와 '변형'인 바, 우리는 '억압적' 권력작용(지배)에 부가하여 '생산적' 권력작용(변형)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 지배: '억압적' 권력작용

이론화의 차원에서, 지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아래로부터의 지배'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힘(force)의 행사에서 시작하여 그 표상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다.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과 그것을 사회역사적 지평에 확대·보충한 마르크스의 지배에 대한 이해가 아래로부터의 지배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영향력(influence)에 기초한 '위로부터의 지배'이다. 지배의 이러한 형태는 니체가 이론화하고, 푸코가 발전시킨 것이다. 두 가지 지배 형태 각각은 모두 대중운동에서 권력작용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것이다.

헤겔의 아래로부터의 지배 이론은 주로 한 사회 집단이 다른 사회 집단의 안녕과 복지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는 능력에 기초한 현상으로서 지배를 정의하였다. 위로부터의 지배에 대한 니체의 설명은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면서 구성되는 것으로서 지배를 위치시킨다. 이러한 두 입장을 병렬시키면서, 우리는 이론적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념론자' 헤겔이 지배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을 제공한 반면에, 반관념론자인 니체가 관념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상징적 개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배의 두 형태 사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학론은 둘 중의 올바른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현상으로서의 지배를 이해하는 적절한 모델로서 하나의 단순 지배형태를 표명하고자 하는 욕망은 잘못된 것이다. 대중운동 연구

자들은 지배의 두 형태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실제적이고 심각한 오류는 지배의 어떤 유일한 모델이 모든 이질적인 형태들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는 독단적 사고에 잠재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헤겔과 니체의 견해에 의해 자극되었다. 그들 각각은 문화의 '짜임새'를 구성하는 힘의 사용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개념이라고 기술했던 지배의 특수한 기제의 사용을 통하여, 권력 관계를 형성하는 대안적인 수단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전개되면서, 니체와 헤겔 모두는 지배의 일반적 개념과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았던 지배의 특수한 기제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헤겔과 니체는 일반적인 지배와 지배의 특수한 기제를 암묵적으로 동일시한 것이다.⁷⁾

지배에 대한 필자의 설명은 헤겔이나 니체가 무시했던—나아가 마르크스와 특히 푸코의 권력이론의 한계로부터—지점에 정신분석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시작된다. 지배는 피지배자를 상해하고 그것의 예시를 위해서 특수한 기제를 요구하는 억압적 권력작용이다. 그러나 지배는 어떤 특수한 지배의 기제, 즉 권력유형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며, 또는 그 기제나 유형이 대중운동에서 근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⁸⁾ 반대로 대중운동은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전개되고, 따라서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다층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중운동은 종종 정치사회화론에서 시

7) 엄격하게, 또 공정하게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해 니체는 헤겔보다는 훨씬 더 정신분석적인 작업으로서의 발전을 보여준다. 니체는 지배에 있어서 성직자의 가치 평가와 전제정의 가치 평가를 구분함으로써 대안적 지배 양식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다. Eugene Victor Wolfenstein, "Just Like A Woman: Time and Gender in Nietzsche's Philosophy",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NY: 1994), pp.2~4.

8) 권력작용으로서의 지배와 권력유형으로서의 지배의 기제를 체계적으로 구별함으로써만 '영도방법'의 이론적 원리를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유형은 다양하게 세분될 수 있으나, 지배와 변형의 권력작용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힘(force), 강제력(coercion), 조작(manipulation), 그리고 영향력(influence)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이러한 '권력의 유형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Dennis H. Wrong, *Power: Its Forms, Bases, and Uses*(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5).

도되는 단일한 양식으로 개념화될 수 없다. 대중운동에서 영도의 문제는 정치 사회화에 의해 개념화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모순적이다. 다양한 사회 집단들은 서로서로 겹쳐 있으며, 대중운동을 성격 규정하는 역동적 긴장을 유발한다. 대중운동에서의 지배를 개념화하기 위한 전략은 대중운동 그 자체가 통합체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적이지 않다. 헤게모니 이론과 같이, 지배를 설명하는 기본 모델을 찾으려는 것은 환상을 좇아 사냥을 떠나는 것과 동일하다. 사회적 행위자의 지배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은 매우 다양하다. 그 전략들을 단순한 하나의 모델로 환원시키는 것은 지배의 근원이 가지는 복합성을 축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헤겔이나 니체가 지배의 기초에 대한 상이한 설명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의 논의에 직접적으로 관련시킬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지배의 상이한 층위들이 다양한 기초를 가진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니체주의적 그리고 헤겔주의적 설명들 모두는 지배가 구성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먼저 지배 개념의 본질을 명확히 해보자. 베버는 지배 개념이 정치 사회화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베버는 권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권력은 사회학적으로 무정형적이다. 인간의 모든 생각할 만한 속성들과 짜임새는 누군가를 그/그녀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에 자리매김한다(즉, 베버의 정의에 의하면 권력을 행사하는—인용자). 그러므로 지배(Herrschaft)의 사회학적 개념은 더 간결한 것임이 틀림없고, 질서로의 종속을 발견하는 기회를 의미할 수 있다.⁹⁾

베버는 지배가 권력보다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가 보다 적절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지배가 이러한 분명한 의미—누군

9) Max We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 Grundriss der Verstehenden Soziologie*, 5th ed.(Tübingen : Mohr, 1985), S. 28~29.

가를 어떠한 질서에 종속시킬 가능성—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화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버에게 지배 개념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 즉 권력이라는 무정형의 개념으로 획득될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수단이다.

베버가 지배개념을 통해 파악하려고 한 문제—예를 들면, 한 집단(개인)이 어떻게 다른 집단(개인)을 억압하는가—는 지배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대중운동 분석을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베버적 의미에서, 권력개념이 무정형적이고 애매한 것이라는 것을 필자가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버의 권력개념이 가지는 일반성은 그가 지배 개념을 통해 논의했듯이, 정치사회화론에서 주요한 주제를 형성하는 일련의 지속적인 대상관계를 언급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지배’라는 용어는 독일어에서와는 달리 영어에서 매우 다른 의미론적 가치를 지닌다. 영어에서 지배라는 용어 domination은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를 볼 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 지배를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의 지배는 포괄적인 사회관계를 기술하는 수단으로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어법이 아니다. 이것은 독일어의 경우 사뭇 다르다. Herrschaft라는 독일어 용어는 다른 것들 사이에서 ‘규칙’과 ‘명령’을 의미하는 일상적인 단어이다. 베버의 Herrschaft라는 단어 사용은 일상적인 독일어 어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영어의 domination이라는 용어 사용이 일상적 어법에 의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화론은 그런 관계들을 개념화하는 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지배자가 피지배자에 대한 관계를 기술하는 특수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domination을 사용하고자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배와 다양한 권력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러한 권력유형들은 하나의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행위 환경을 제한할 수 있는 특수한 기제들이다. 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두 행위자간의 단순한 상호작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반복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억압함으로써, 피지배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권력이 행사되는 상황,

즉 자기가 타자를 종속시키는 권력작용을 지칭하기 위해 지배 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지배 개념은 권력행사의 특수한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한 권력작용은 두 행위자간의 대상관계를 조건짓는 것임이 틀림없다. 즉 지배는 단순한 권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권력의 존재에 의해 구성되는 두 사회적 행위자 사이의 대상관계의 구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순한 권력행사로부터 두 사회적 행위자간에 존재하는 차별적 권력의 존재에 의해 구성되는 대상관계로의 초점 변화는 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진 매우 중요한 이론적 성과이다. 그것은 대중운동 연구자들이 '어떤 종류의 효과들이 권력개념의 사용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대중운동 속에서 그런 효과의 체계적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관심의 초점을 변경시키게끔 한다.

그러나 차별적 권력이 개입하는 두 사회적 행위자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가 모두 지배의 실례는 아니다. 두 행위자간의 관계는 피지배자가 특별히 그 관계를 통해 상해받는다면 바로 그것이 지배의 예이다. 즉 배제와는 달리 지배 개념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 근거한 특수한 권력관계의 유형이 아니다. 지배라는 용어는 권력관계의 형성을 특수화하는 데, 다시 말해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정신 과정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다.

지배는 대상관계에 놓여 있는 일련의 행위자들에 의해 권력유형들과 구분된다. 권력유형들에 관련된 행위자들은 단순한 한 개인일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의 연합 이상인 집합체일 수도 있다. 이렇듯 대상관계적 권력에 대한 분석 논리는 개인적 행위자나 집합적 행위자나 모두 대상관계 속에서 서로의 상관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배에 있어서 상황은 판이하다. 권력관계에서의 상관항은 일차적으로 집합적 주체인 사회 집단 내지 사회 계급이다. 사회적 지배의 일차적 의미는 한 집단이 또는 한 계급이 다른 집단이나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들은 여성들을 지배한다고 종종 이야기된다. 그리고 백인은 흑인을, 또 자본가는 노동자를 마찬가지로 지배한다고 한다. 각각의 경우, 한 집단은 타 집단을 억압하는 권력의 소유자로 자리매김된다. 개인들 간의 권력관계

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처럼, 집단 지배의 전반적인 틀의 결과로서 개념화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지배의 사회 구조의 부재 속에서, 한 개인의 타인에 대한 지배는 사회적 지배의 총위임이 분명하다.

이는 타자에 대해 단순한 개인적 지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인은 그녀의 심리적 양상의 결과로서 자신의 남편을 지배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로빈슨 크루소도 금요일을 지배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화론에서 지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일차적으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배를 '사회적'이란 형용사와 곧바로 동일시할 것이 아니라, 정신분석의 대상관계 이론으로 지배의 문제들을 재구성하여 방법론적인 구분에 불과한 개인과 사회, 미시와 거시의 통합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 개념에 대한 필자의 이해는 베버가 정초한 그것과는 상이하다. 앞에서 이미 거론하였듯이, 베버는 '추종되는 질서의 가능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지배를 정의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그러한 베버의 정의는 강제력과 영향력 둘 사이에 겹쳐 있는 권력의 특수한 유형에 지배를 융해시키는 것이다. 영향력의 많은 형태들은 질서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베버의 정의는 이러한 상이한 권력유형들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다. 더욱더 중요한 점은, 베버의 정의는 권력이, 행사되는 목적과 관련하여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에 대한 필자의 정의는 베버가 사용한 것보다 좀더 특수한 이해에 기초한다.

지배는 두 행위자간의 권력작용의 일 측면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적 관계가 집단적 권력관계에 의존할 때, 우리는 두 개인 간의 관계를 지배로 특징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성격 규정하는 지배라는 용어의 사용은 대상관계의 틀 속에서 세련화된다. 개인주체 a와 b 사이의 관계는, 만약 ① a가 집단 A의 구성원이고, b가 집단 B의 구성원이라면, ② 집단 A가 집단 B를 지배한다면, 그리고 ③ a와 b 사이의 대상 관계가 B에 대한 A의 포괄적인 지배를 의미한다면, 지배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①과 ②는 두 개인주체가 그들이 서로에 대해 권력관계에 있는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의해 권력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③은 집단간의 관계가 지배의

측면을 결정하면, 두 개인 주체간의 대상관계가 지배의 경우로 되는 것을 나타낸다.

지배를 설명하는 이러한 방식은 한 가지 ‘참신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것은 권력관계가 일정한 상황에서 지배 집단의 회생으로 성립된다는 것의 진위 여부이다. 즉 피지배자가 어떤 의미에서 이익을 얻는 권력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가? 권력관계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지배자를 상해하는 것 이상의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될 수도 있는 것인가? 이러한 논의는 두 사회적 행위자간의 권력관계가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를 평가하는 복잡한 문제를 유발한다. 분명하게 말하면, 타자를 상해하는 지배의 권력관계(대상관계적 권력이 지배로 구조화된 상태)의 이면에서 피지배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대상관계적 권력이 지배를 통해서만 자신의 작동 방식을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배 개념은 대중운동에서 권력작용의 중요한 하나의 측면, 즉 연속적이고 구조적인 권력행사를 보여주시는 하지만, 권력관계에서 피지배자의 위치 변화를 추구하는 권력행사를 보여주시는 못한다. 이러한 대상관계 자체를 변형시키는 권력작용의 개념화는 대중을 ‘위한’(?) 지도의 관철이라고 하는 영도원리의 이면을 설명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 동안 대부분의 정치사회화론에 의해 적절하게 인지되지 못했던 권력작용이다.

2) 변형 : ‘생산적’ 권력작용

변형은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피지배자를 ‘억압하는’ 권력행사이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배자는 단순히 피지배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지배자가 자신과 지배자 사이의 차별화된 권력을 근절할 수 있는 어떤 사고와 기술을 배우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곧 변형의 권력작용은 피지배자에게 권한 부여를 함으로써 권력의 억압적 성격을 해소하려고 하는 권력작용인 것이다.

대중운동 연구자들이 변형의 권력작용을 항상 정확하게 인지해 왔던 것은 아니다. 헤게모니 이론에서 그것과 관련된 현상이 종종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정신분석적 페미니스트들이 권력의 특수한 작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변형의 성격을 인지한 첫번째라고 할 수 있다. 헤게모니 이론이 권력작용의 첫째 얼굴, 즉 지배의 측면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강조한 반면에, 페미니스트들은 권력작용의 적절한 개념화는 그 두 얼굴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둘째 얼굴, 즉 변형의 권력작용이 기존의 정치사회화론에 의해서 무시되어 왔다고 강변한다. 권력에 대한 정신분석적 페미니즘 이론이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설명된 '모성(motherhood)'에 대한 견해에 대립하면서, 지배와 변형의 권력작용을 구분하는 것은 대중운동 분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별히 변형의 권력작용에 대한 인지는 권력을 대중운동에서 부정적인 힘으로만 보아왔던 견해와의 근본적인 단절을 가능케 한다. 나아가 변형의 권력작용에 대한 정신분석적 개념화 작업은 인간의 사회관계 및 문화변동에서 '구성적' 힘으로 등장하는 생산적 권력작용을 포착하게끔 한다.

그러한 작업은 권력을 내재적으로 지배의 형태로서만 개념화시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권력을 지배의 형태로서 개념화시키는 헤게모니 이론은 권력행사는 원천적으로 의심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권력행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게끔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권력이 타자들에 대한 지배라는 단순 모델에 입각하여 개념화되는 한에 있어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타자들과 조정관계를 회피해야 한다는 이론적 집착 때문에 권력이 개입하는 모든 사회적 관행들을 폐지하는 오류를 지니게 된다. 사실상 권력행사를 회피하는 시도들은 자기파괴적이고 위험한 것이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권력작용을 보면, 권력이 대인적 대상관계에서 얼마나 생산적 힘으로 기능하는가를 보여준다.¹⁰⁾

따라서 정신분석적 페미니스트들의 관점은 권력을 순수하게 부정적인 용어로 인지하는 정치사회화론에 대한 비판 수단을 제공한다. 그들의 견해는 모든

10)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어머니노릇하기(mothering)'에 내재한 긍정적 또는 생산적 힘으로서의 권력은 유아의 자아 발달과 인격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권력작용이 권력이 행사되는 대상에 부정적이고 소외시키는 효과만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¹¹⁾ 사실상 권력은 인간 존재가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주권과 통제를 획득하게 하는 사회관계의 필수불가결한 긍정적 형상이다. 권력이 보호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때, 대상의 성장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라는 '상이한' 권력표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지배라고 하는 일면적 권력작용에 대한 비판 수단이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변형의 권력작용은 대중운동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변형의 권력작용에 대한 개념화 작업은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을 전개하는 각종의 조직체(영도체계) 안에서 지도와 대중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회관계를 분석하는 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영도원리에 내재한 듯이 보이는 변형의 권력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대중과 대면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대중운동의 정신역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이 그 자신의 독립성이 틀림없이 보장된 집합체로 보여지는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에서, 변형 개념은 의존적 존재가 자립을 획득하는 위계적 사회관계가 결국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고 방식을 열어준다.

3. 북한 대중운동의 성격과 사회적 관행

경제적 토대가 굳건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유지하려는 북한에서, 영도방법의 문제는 대중의 '자발적' 의지를 끌어내는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도원리와 영도체계, 그리고 영도예술의 통합체인 영도방법은 일정한 사회적 관행을 만들어내기 마

11) 지배의 또는 변형의 권력작용 사이의 구별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정신분석적 페미니스트들은 근대성에서의 권력체 형성에 대한 푸코의 논의가 부적절한 권력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Nina L. Molinaro, *Foucault, Feminism, and Power* (London and Toronto : Bucknell University Press, 1991).

련이다. 필자는 그 사회적 관행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대중운동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1) 영도의 본질과 원리

주체사상은 영도의 본질과 연관된 논의를, 첫째, 혁명과 건설에서 영도의 주체, 둘째, 영도의 궁극적 의미, 셋째, 영도의 기본 내용으로 정리한다.¹²⁾

주체사상에 따르면, 영도주체는 ‘노동 계급의 수령’이다. 수령은 대중의 ‘최고 뇌수’이자 단결의 중심점이며 혁명 사상의 창시자로서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강력하고 주체적인 혁명 역량을 마련하는 존재이다. 수령은 개별적 인간이 아니라 대중 전체의 이해와 의사를 대변한다. 주체사상에서 혁명적 영도는 수령을 핵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지도이고, 그 지도의 근본적 의미는 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자각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영도는 수령에 의한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대중이 자주적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 한다. 다만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수령의 영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도의 의미를 전제로 하여, 혁명적 영도의 기본 내용은 당면한 주객관적 정세와 조건에 맞게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대중과의 ‘혈연적’ 관계를 바탕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영도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영도원리가 부각되는데, 주체사상에 의하면 노동 계급의 당이 혁명적 영도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은 ①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실현, ② 주체의 확립, ③ 혁명적 균중노선의 관철이다.¹³⁾

첫째,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실현은 영도의 최고 원리로서 지도에서의 통일성과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대중의 의식화와 조직화, 그리고 사상의지적 단합은 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영도의 주체인 수령의 사상만이 당과 국가 및 인민 대중을 지배하고, 그에 따라 당과 국가 및 인민 대

12)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총서 : 영도체계』 제9권, 33~46쪽.

13) 앞의 책, 47~76쪽.

중이 일관되게 복종하는 것이 영도원리의 핵심이다. 둘째, 주체의 확립은 대중의 능력을 배양·동원하여 여러 당면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셋째, 혁명적 군중 노선의 관철은 당이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영도의 기본방향으로 규정된다. 결국 영도원리는 사회 역사 발전의 추동력이 대중에게 있고, 이를 이끌어 가는 존재인 수령의 유일성을 공고히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영도원리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회적 관행은 무엇인가?

2) 대중운동의 실천방식 : '어머니노릇하기'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동안 북한사회의 대중운동 과정이 단순하게 지배의 권력관계가 구조화되는 차원에서만 논의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의 성격이 위계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즉 지배자(수령, 당, 국가, 근로단체들)가 피지배자(대중)와 억압적 연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관계는 피지배자가 변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여지고, 그들 안에서 그 변화를 육성하고자 시도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배자가 권력을 변형의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적어도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중운동 속의 사회적 관행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영도방법의 실행에서, 지배자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피지배자의 성장과정을 야기하는 주체로서 등장한다.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에서 영도의 본질은 대중으로 하여금 주인 또는 주체로서의 역할과 자각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한다. 이것은 어떤 행위자(자기)가 다른 행위자(타자)를 억압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력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지배 대상(피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대중운동의 영도원리가 일차적으로 온정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치 '온정주의(paternalism)'는 지배의 권력작용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지배는 권력유형이 아니라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온정주의는 권

력의 특수한 유형이 아니라 권력작용을 정당화하는 방식이다. 온정주의의 예가 되는 두 사회적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틀림없이 일종의 위계가 존재한다. 그러한 위계의 간결한 형태는 권력관계를 온정주의적으로 특정화시키는 것에 의해 드러나는데, 특정화된 모든 것은 대상관계에서 행사된 권력이 형식적으로는 피지배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의도된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지배하는 것은 확실히 사실인데, 특히 부모가 아이들의 ‘좋은 대상(good object)’¹⁴⁾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할 때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이 온정주의적 관계가 반드시 지배의 권력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관계는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익에 반하여 행동할 때 특히 드러난다. 온정주의는 지배의 권력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의 온정주의적 정당화는 영도원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실현에 이미 내재화되어 있다. 대중의 창의성을 계발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이끈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대중을 의식화·조직화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수령은 통일과 단결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대중을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집단으로 만든다고 한다.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공산주의적 위업은 언제나 노동 계급의 수령의 영도 밑에 진행되고 완성된다. 그러므로 수령의 유일적 영도 원칙은 수령의 영도 밑에 진행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전 기간에 계속 항구적으로 견지해야 할 영도의 최고 원칙이다.”¹⁵⁾

이렇게 볼 때, 수령은 이인화(離人化)된 권력 표상에 불과한 것이다. 수령은 온정주의적 ‘부모 형상(parental figures)’을 지니면서 지배를 합리화하는 매체

14) ‘좋은(또는 나쁜) 대상’은 유아의 환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초기의 부분 또는 전체의 충동 대상을 지시하기 위하여 아동 정신 분석가 멜라니 클라인이 도입한 용어이다. ‘좋은(또는 나쁜)’의 속성은 만족시키고 좌절시키는 그것의 특성뿐만 아니라, 주체가 리비도적 또는 파괴적 충동을 대상에 투사하기 때문에 부여된 것이다. 결국 좋은(또는 나쁜) 대상은 내사와 투사의 과정에 종속된다. Jean Laplanche and J.-B. Pontalis, *The Language of Psycho-Analysis*(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1973), pp.187~188.

15)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총서 : 영도체계』 제9권, 54쪽.

인 것이다. 즉 부모 형상의 온정주의적 이미지를 대중에게 내면화시키고, 그들 내부에서 무의식적 ‘부분 대상들(part-objects)’¹⁶⁾에 대한 환상을 지속시키며, 자존과 자기 결정에 대해 무감각한 의존적 인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온정주의적 환경에서 지배가 가리어지는 이유는 “대중을 주체로서 확립하고,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한다”는 모토로 이루어지는 변형의 권력작용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영도원리의 실제적 함의를 추적해 볼 때,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에는 지배의 권력작용과 변형의 권력작용, 양자가 모두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이 지배의 권력작용으로 특징화된다고 하더라도, 영도원리가 초래하는 사회적 관행의 어떠한 형태도 일정 한도 내에서 변형의 권력작용과 관계될 수밖에 없다.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의 궁극적 목적이 정치사상교양을 통해 인간 개조를 이루어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라 할 때, 이와 연결되어 대중운동의 심층 구조와 내포적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이 있다. ‘어머니노릇하기’가 바로 그것이다.

변형의 지점으로서 어머니노릇하기는 실제로 가족이 남성 지배를 재생산하는 장소이고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봉사함으로써 지배당한다는 주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발전되었다. 어머니노릇하기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배가 세대를 가로질러 재생산되는 주요 수단으로서 고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배의 권력관계에서, 어머니에 의한 ‘등급화(grading)’는 아이들에게 심리 발달에 대한 선택적인 접근을 하계급 유도한다. 더구나 그것은 아이들이 어

16) 부분 대상은 실제적 또는 환상화된 몸의 부분들(유방, 배설물, 페니스)과 그 상징적 등가물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보통 클라인 학파의 정신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부분 대상은 대상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클라인은 “조증·우울증적 상태의 심리 발생에 대한 기여”, “A Contribution to the Psychogenesis of Manic-depressive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 16(1935), pp.145~174에서 전체 대상관계를 획득하는 것은 양가성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결과한다고 하면서, 부분 대상관계는 양가성으로부터 자아의 해방을 수반한다고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온은 부분대상이 물질적 현존이리기보다는 어떤 기능을 가지는 감정적 대상이라고 결론짓는다. “부분 대상관계는 해부학적 구조가 아니라 일종의 기능이며, 해부 기관이 아니라 심리 작용이다. 그것은 단순히 유방이나 페니스가 아니라, 젖먹이기, 중독시키기, 생존하기, 그리고 증오하기이다”, Wilfred Bion, “Attacks on L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 40(1959), p.102.

머니의 의견 하에서 어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정도에 근거하여 차별적 보상의 유형들을 결정한다. 어머니노릇하기는 지배적인 문화적 표상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사회적 행위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배의 권력관계의 유지에 순기능적이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듯이, 루딕은 많은 여성들의 어머니노릇하기가 지배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에 의해 구성된다고, 즉 아이들을 문화에 적응시키는 데 열중하는 자아심리학적 실천이라고 주장한다.¹⁷⁾ 즉 어머니노릇하기는 억압적인 문화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개인들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억압적인 문화에 대한 저항적 실천을 지지하는 대신에, 어머니노릇하기는 그 저항을 문화의 억압적 코드에 융화시키고 문화가 제공하는 삶을 받아들이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이들을 불안과 두려움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더욱 자립적인 존재로 정립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어머니노릇하기는 변형의 권력작용을 담보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따라서 어머니노릇하기가 변형의 권력작용인가 아니면 지배의 권력작용인가라는 것은 그리 쉽게 합의되지 않는 문제이다.

이러한 '불일치'의 근원은 어머니노릇하기라는 사회적 관행이 가진 변형적 잠재력이 대중운동에서 지배의 권력 표상 아래에 감추어져 있다는 데 존재한다(역도 마찬가지로). 이 지배의 권력 표상은 대상관계에서 지배의 권력관계를 통합함으로써 구성되는데, 그 통합이 없다면 대상관계는 지배가 아니라 변형의 권력관계로 나타날 것이다.¹⁸⁾ 이러한 통합은 어머니노릇하기에 대해서 비판자들이 주목하는데 실패한 변형의 권력관계를 또는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에

17) Sara Ruddick, "Maternal Thinking" in Joyce Trebilcot, ed., *Mothering: Essays in Feminist Theory*(Totowa, NJ: Rowman & Allanheld, 1983), pp.213~230.

18) '통합(superposition, 縫合)'이라는 용어 사용은 수술한 자리나 외상으로 갈라진 자리를 꿰매어 붙인다는 해부학 용어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그 자리의 상처는 배후에 가리어 지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하나의 사진기술적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에 겹쳐져서 원래의 이미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형상은 겉으로는 하나이지만, 이면에 또 하나의 형상을 포함하게 된다. 그런 형상은 이중 구조를 가지는 사회적 관행을 묘사하게 된다. 두 대상은 동시에 동일한 장소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형상을 지시하기 위해 필자는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서 지배의 권력작용이 변형의 권력작용에 포함됨으로써 가리어지는 근거를 드러낸다고 생각된다.¹⁹⁾

어머니노릇하기는 지배의 권력관계를 그 자신에 봉합시킴으로써 잘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변형의 권력작용의 일례인 어머니노릇하기가 부분적으로 그 성격과 조응하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억압적인 문화적 맥락은 어머니노릇하기의 본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좀더 세밀히 고찰해 보자. 어머니노릇하기라는 사회적 관행에 지배의 권력관계가 봉합되었다는 생각은 아이들이 어떤 ‘좋은 대상’으로의 접근을 결정하는 수단을 가지고 그 실천의 결과를 원용하는 문화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머니노릇하기는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의 실천 방식(영도예술)에 어떻게 대중 속에 구현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을 준다.

문화 속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아이에게 좋은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어머니는 아이가 어떻게 문화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전자의 관심사가 어머니노릇하기에서 변형의 수행자로서 어머니를 구성하는 것인 반면, 후자의 관심사는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아이들이 문화 속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기회에 접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녀는 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하여 아이를 양육한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문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성원, 즉 문화 안에서 이용 가능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한, 그녀는 더 이상 자기결정적인 어른으로 아이를 발전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러한 어머니는 아이가 양육되어지는 문화에 적응하기를 원하는 한, 아이는 문화적으

19) 이 대목에서 지적해야 할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 어머니노릇하기는 권력작용의 억압적 형상(지배의 성격)이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고 권력작용의 생산적 형상(변형의 성격)이 가리어져 있으나,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의 경우는 정반대의 질서를 가진다. 즉 영도원리가 추구하는 것은 권력관계에서 피지배자의 위치 변화를 도모하는 변형의 성격을 가지나, 그것의 무의식적 결과는 지배의 권력관계를 공고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또는 분석적 관점에서 그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상관계라는 공유된 장에서 서로 봉합되어 있는 두 가지 권력작용을 구분하고, 그 봉합의 구조와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채택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아이 훈육과 마찬가지로, 혁명과 건설의 성과 여부가 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북한의 영도원리는 구체적인 대중운동의 실천방식을 가진다. 대중을 직접 만나 운동을 전개시키는 지도 기술인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이 바로 그것이다.²⁰⁾ 먼저 혁명적 사업 방법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대중 자신의 것으로 전환시켜 자각적 열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양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위가 아래를 도와주며 지도일군이 늘 대중 속에 들어가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 사업에 선후를 가리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 방법, 모든 사업을 격식과 틀이 없이 창조적으로 하는 방법, 분공(역할 분담)과 검열 및 집행 정형의 총화 방법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그리고 인민적 사업 작풍은 혁명 사업과 대중을 교양하는 혁명가의 태도, 정치, 도덕적 풍모를 말한다. 이는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그 핵심을 이룬다. 주체사상에서 인민적 사업작풍은 혁명가적 기풍과 인민적 품성을 그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혁명가적 기풍은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 정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이신작칙(以身作則),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 혁명적 원칙성과 노숙성, 자기 사업에 대한 검토와 수행 등이다. 그리고 인민적 품성은 어머니다운 풍모, 겸손성과 소박성, 풍부한 인간성과 문화성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실천 방식은 수령의 유일적 체계를 세우고, 그와 관련하여 대중운동의 지도를 체계화한다는 데 그 비밀이 있다. 이러한 영도예술에서 사회관계의 유형은 분명하게 변형의 권력관계를 형성하는 듯하다. 변형의 권력관계는 피지배자에게 행사되는 지배자의 생산적 권력이 문화적 차별을 누그러뜨리는 대상관계이다. 어머니가 성공을 위한 아이의 기회가 문화적 차별에 의해 조건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순수하게 변형적 방식이 아니라 문화적 차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다. 마찬가지로 지배

20)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총서 : 영도예술』 제10권(서울 : 지평, 1989).

자가 대중운동의 지도체계를 세우는데 있어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와 혁명적 군중 노선이 상호 모순됨을 알게 될 때, 대중에 근거한다는 영도예술은 지배와 변형의 통합 구조에서 지배에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변형의 권력관계가 지배의 권력관계에 통합되어 있는 모아관계의 구조에 빗대어, 필자는 영도예술이 가진 왜곡된 형상을 통합이란 용어를 통해 설명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통합의 결과, 영도예술로서의 어머니노릇하기는 단일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지배의 권력관계가 어머니노릇하기의 한 측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딕의 '존재의 어머니적 양식'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의 차별적인 권력관계(지배와 변형)의 통합결과인 사회적 관행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적이고 자기결정적인 자기의 생산이 목적인 '진정한' 어머니노릇하기는 변형의 권력관계의 실례인 반면, 지배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지배의 권력관계로서 어머니노릇하기를 특징화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권력관계는 분석적으로는 구분되나 현실적으로는 서로 융합되어 있다. 한 측면을 유발하는 바로 그 동일한 행위가 다른 측면을 구성하는 것이다.

한 측면의 권력관계가 다른 측면의 권력관계에 통합된 결과라는 이러한 특수한 사회적 관행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진행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참가는 각 사업장 또는 사업소 내에서 10여 차례의 회의를 열어 목표와 사업 방안을 설정한 종합적인 결의문을 작성하면서 시작된다. 이 결의문은 소속 직장 또는 사업소의 직업동맹 위원장에게 제출되며, 직업동맹에서는 간부회의를 열고 그러한 결의 내용의 충실성과 실천 가능성을 평가하고 검토한다. 그리고 나서 그 결의내용을 직장 내 종업원회의, 공장 당위원회, 도 직업동맹위원회, 직업동맹 중앙본부에 제출하고, 그 결의서가 중앙에서 승인되면 참가자격이 인정된다.²¹⁾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경제와 문화의 건설에서 집단적 혁신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곧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의 점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²²⁾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우선 사상

21) 천춘희, "경제관리에 대한 생산자 대중의 참가와 천리마 작업반 운동", 『경제연구』(평양: 1966. 3), 11~12쪽.

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사회 노동에 대한 열성적 참여, 각종 회의에서 솔직한 자아비판과 상호비판, 비판받은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정 노력, 정치 학습·기술 학습·군사 훈련·위생의 각종 학습에의 열성적 참여, 노동계급에 위배되는 지각·결근·조퇴 등을 없애는 것을 척도로 한다. 그리고 물질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소요 자재의 절약, 잘못된 작품을 없애는 것, 생산의 질적인 향상과 양적인 증대 등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된 지 6개월 후에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합격하면 천리마 작업반의 칭호를 얻으며, 불합격 시에는 2차에 걸쳐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²²⁾

여기서 일반적으로 당은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고, 대중은 그것들을 소유하려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배우는 구조가 성립된다. 실제로 대중이 당(또는 국가기관과 근로 단체들)으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양자 사이에는 당이 대중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목적과 관련되어 권력관계가 존재할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 권력관계는 간단히 말해서 전수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근거한 ‘도제살이(apprenticeship)’에 비유할 수 있다. 견습생은 문제시되는 지식과 기술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은 견습생에게 억압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인은 지식과 기술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수하는 페이스와 방식 또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제살이는 주체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변형의 권력관계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당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얻으려고 하는 대중을 가르치는 당은 그 대중을 보다 유능하고 창의적인 존재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당은 대중과의 대상관계 속에서 변형의 권력작용에 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의 가르치기는 정상적으로 순수하게 도제살이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당은 수령에 의해 시작된 운동의 진행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수령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인 규정력을 가진다. 수령의 유일사상을 체현하고 이를 생산 현장에

22)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역사사건 II』(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745~747쪽.

23) 공산권문예연구소, 『북한관계자료집』(서울, 1973), 160~165쪽.

서 구체적인 성과물로 획득해 가는 것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기본 성격임을 전제할 때, 바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무기가 수령의 유일적 영도인 것이다.

어머니노릇하기의 문화적 맥락(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실현)은 도제살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관계의 변형적 성격은 지배의 권력관계의 봉합에 의해서 변화되고, 당과 대중의 행위는 두 가지 차별적이나 서로 연결된 맥락 속에서 펼쳐지게 된다. 한편, 그 행위는 잠재적으로 변형의 권력관계의 일부분인 반면, 다른 한편 지배의 권력관계를 재현한다.

그러한 봉합의 성격은 운동 과정에서 대중에 대한 당의 평가가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하면 자명해진다. 당은 대중을 등급화하는 데 책임이 있는 덕분에 대중과 지배의 권력관계에 들어간다. 그러나 대중에 대한 당의 평가는 변형의 권력관계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천리마 작업반의 구성원이 되는 데 실제로 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라는 대중의 감각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당의 평가에 의존한다. 그러한 관계에서 당의 평가는 대중의 업적 달성 수준에 대한 당의 지각을 대중에게 전수하는 의사소통의 형태로서 기능한다. 비록 한 행위자에 대한 다른 행위자의 평가가 지배의 권력관계와 변형의 권력관계 둘 다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는 이 두 가지 권력관계의 유형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후자의 경우, 그 평가는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를 억압하는 권력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 당이 대중을 억압하면서 소유하는 권력은 불평등한 지식과 기술의 소유에 기초한다. 따라서 평가는 이러한 기본적 불평등의 맥락 속에서 가능하며, 대중의 성장 정도에 대한 당의 지각을 대중에게 소통시켜 준다. 그러므로 당의 어머니노릇하기는 지배의 권력작용에 의해 수행되나, 역으로 등급의 형태로 나타나는 평가 행위는 등급화 자체가 권한 부여되는 행위자, 즉 대중의 권력을 구성하기 때문에 변형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천리마 작업 운동에서 평가 행위에 대한 분석은 지배/변형의 권력관계의 봉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 그런 관계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지배의 권력관계가 변형의 권력관계를 흡수하여 그것에 아주 상이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²⁴⁾ 이것은 두 상이한 권력관계의 유형이 핵심에 있어서 타자에 대해 상동

적인 두 사회적 행위주체간의 대상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관계의 두 유형이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노릇하기는 두 권력관계를 예시하고 내포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어머니노릇하기의 경우, 권력관계의 두 유형은 대중운동의 형상으로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대중이 당을 비롯한 영도체계에 대면할 때, 당은 두 가지 상이한 권력관계 유형으로 지배자를 재현한다. 한편으로 대중이 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자신에게 전수하는 주체로 당을 보는 한, 당은 대중과 관련하여 주인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중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항목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평가하는 주체로 당을 보는 한, 당은 지배의 권력관계에서의 지배자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관계 유형에서 당은 매우 강력하게 보여지는데, 대중이 문화적 가치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배의 권력관계와 변형의 권력관계가 모두 동일한 사회적 관행, 즉 어머니노릇하기에 의해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상호 인정된 두 행위자에 의해서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형의 권력관계에 통합된 지배의 권력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배의 권력관계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라는 '도그마'를 매개로 변형의 권력관계를 통합시킴으로써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리는 것이다.

4. 맺음말-변형의 '부인'과 민주주의적 함의

어머니노릇하기를 통해 알아보았듯이,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은 일종의 '딜레마'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에서 변형의 권력작용은 문화의 억압적 맥락을 지탱하는 지배의 형태로 재구조화된다. 그것은 마치 치료자가 환자의 정신병리를 치료하는 변형적 방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환자를

24) 헤겔의 용어, 지양(Aufhebung)을 생각하면, 두 유형의 권력관계의 통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원래의 관계는 통합에 의해 감추어지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보존되는 것이다.

사회적 역할에 순응하도록 자신의 기술을 행사하는 것과 흡사하다. 여기에 영도원리의 비밀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인식은 이데올로기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서는 얻어지지 않는다.

변형의 권력관계와 지배의 권력관계의 통합에 대한 필자의 분석이 올바르다면, 그 동안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에서 지배의 권력작용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파악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일단 지배의 권력관계가 '가장된' 변형에 의해 통합되면 사회적 관행의 기본성격은 변한다. 이제 나타나는 사회적 관행은 분화된 것이며, 지배의 전반적인 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지배의 권력관계를 감추는 이러한 통합은 '진정한'(가장된 것이 아닌) 변형의 존재에 대한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대중이 수령과 당으로부터 받은 가치 평가에 의해 결정된 '좋은 대상'에 접근하기 때문에, 대중은 대상관계에서 지배의 권력관계를 자연스럽게 망각한다. 변형의 권력관계에 요구되는 대상관계의 상호성 역시 거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으로 변하며, 수령과 당이 '좋은 대상'으로의 접근을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중의 인식은 공고화된다. 결론적으로 어머니노릇하기라는 사회적 관행의 존재론적인 구조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에서, 권력작용의 변형적 구성 요소는 가장될 뿐 실제로 무시되고, 오히려 그것들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실현을 보장하는 사회적 지배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권력작용의 변형적 성격을 구조적으로 부인하는 북한사회의 대중운동은 그 영도체계상,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라는 '완전함'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일종의 편집증적 계기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북한사회 대중운동의 기본적 성격은 결국 지도성과 대중성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을 인정하지 않는 '전일성'에 있다고 하겠다. 영도방법은 대중의 자발성과 창조성보다는 수령과 당의 지도를 관철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대중에 가장 밀접하게 직면하는 근로단체들에서조차도 작업장 내에서의 규율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지도성과 대중성은 '항상' 일치하는 것도 또한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대중운동에서 민주주의적 정치의 정신역동적 조건은 기본적으로 대상관계의 상호성에 입각한 차이와 타자성의 인정과

관련되어 있다.²⁵⁾ 민주주의적 환경에서 살고 민주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 경험의 갈등과 분열된 속성을 무시하는 완전함의 관념을 버려야 한다. 역으로 정치사회화의 기초적 장인 대상관계에서의 갈등과 분열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포용하는 기제와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만 우리는 인간들 사이의 상호성을 근절함이 없이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관계자료집』(서울, 1973).
- 김경웅, 『북한정치사회화론』(서울 : 박영사, 1995).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역사사전 II』(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총서 : 영도체계』 제9권(서울 : 지평, 1989).
-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총서 : 영도예술』 제10권(서울 : 지평, 1989).
- 이만우, “민주주의적 정치의 정신역동적 조건들—윈니코트(Winnicott)의 심리발달 이론과 그 비판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1권 제3호(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 천춘희, “경제관리에 대한 생산자 대중의 참가와 천리마 작업반 운동”, 『경제연구』(평양 : 1966. 3, 1966).
- Bion, Wilfred, “Attacks on L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 40(1959).
- Compton, Allan, “Object and Object Relations” in Burness E. Moore and Bernard D. Fine, eds., *Psychoanalysis : The Major Concepts*(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1995).
- Fontana, Benedetto, *Hegemony and Power*(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25) 민주주의적 정치 과정의 정신병적 계기들을 정신병 환자의 개인 심리를 통해 유추한 것으로서 다음을 참고. 참고, “민주주의적 정치의 정신역동적 조건들—윈니코트(Winnicott)의 심리발달 이론과 그 비판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1권 제3호(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 Press, 1993).
- Klein, Melanie, “A Contribution to the Psychogenesis of Manic-depressive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Analysis, vol. 16(1935).
- Laplanche, Jean and Pontalis J.-B., *The Language of Psycho-Analysis*(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1973).
- Molinaro, Nina L., *Foucault, Feminism, and Power*(London and Toronto : Bucknell
University Press, 1991).
- Ruddick, Sara, “Maternal Thinking” in Joyce Trebilcot, ed., *Mothering : Essays in
Feminist Theory*(Totowa, NJ : Rowman & Allanheld, 1983).
- Weber, Max, *Wirtschaft und Gesellschaft : Grundriss der Verstehenden Soziologie*,
5th ed.(Tübingen : Mohr, 1985).
- Wrong, Dennis H., *Power : Its Forms, Bases, and Uses*(New Brunswick : Tansaction
Publishers, 1995).

〈Abstract〉

A Study on Power Operation in the Mass Movement Developed in North-Korean Society : Focusing on the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of So-called "Guiding methods"

Lee Man Woo (Kookmin University, Sociology & Psychoanalysis)

This article deals with power operation, internalized in the mass movement in North Korea. To begin with, I conceptualized power operation in the mass movement on the basis of the object relations theory of psychoanalysis. The power oper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One is "domination," which evokes repressive power relations, the other is called "transformation," and represents the productive functions of power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 including all the societal levels. My argument of transformation shows why the dominator(party and governmental institutions) pretends to use their power over the dominated(the mass) in order to help the latter attain certain skills or abilities. Also, these conceptual tools enable us to explain why the "guiding methods" of mass movement necessarily result in means of social control over the masses.

Secondly, I analyze the social practices provoked by the principles or arts of "guiding methods." Social practices in the mass movement could be analogized with "mothering." Mothering has a unique "sutured" structure of domination and transformation. In other words, two sides of different power relations occupy the same position simultaneously. The dominant aspects of "guiding principles" have been masked under transformative roles, entitled to "the solely guiding of 'Sooreoying.'"

Lastly, I suggest that the psycho-dynamic conditions for the democratic exercise of power in contrast with the paranoid actions of the mass movement in North Korea. The conditions do not reveal "guiding methods," filled with the idea of "wholeness," but the mutual recognition of conflicts between the leader and the masses.